

현대주택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195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김정근 · 이원주
주거환경학과

<요약>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시대별 주택의 변화를 통해 대표적인 주택양식을 파악하고 그 표현 특성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방법에 의하였고 관련논문과 사진자료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주택양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지붕이었으며 그 형태와 외부 재료 및 장식의 표현 특징에 따라 양식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현대 주택양식은 개량 한옥양식, 평지붕 양식, 박공지붕 양식, 복합지붕 양식으로 나타났다. 개량 한옥 양식은 1950년대 이후 급증하였으나 70년대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었고 1960년대와 1970년대는 평지붕 양식이 크게 유행 하였으며 1980년 부터는 레이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양식의 영향이 강하였다. 1990년대는 해체주의 경향이 주택에 도입되어 양식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표현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A Study on the Styles of Single Detached House in Korea Since 1950

Kim, Jung-Keun · Lee, Won-Ju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styles of single detached house in Korea since 1950 an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esign by analyzing

the constant and changing factors. Previous studies including architectural publications were the resource of analysis. Result were as follows : First, four proto-typical styles in Korea were Revised traditional style, Flat roof style, Gabled roof style and Complex roof style. These styles were found to be influenced by International style, Neo-Classism, French style, Post Modernism and De constructivism from the western culture. Second, Architects in Korea have introduced western styles continuously and created Korean styles based on them but, they could not reflect public preferences such as convenience and economic factors in designing the house styles. Third, the most dominant factor in the styles of house were the forms of roof, and it brought some changes in the images with increase of deconstructivism.

I. 서론

궁전이나 신전과 같이 상징적 건축이 아닌 가족 생활의 문화가 계획된 주택의 역사는 르네상스 이후로 알려져 있다. 주택에 표현되는 시각적 특성은 특정 시대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미의식, 기술 등을 함축하고 있으므로(김민수,1994) 주택에 나타나는 표현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속과 단절이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주택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주택 평면의 공간 형식이나 조직을 분석하는 것이어서 주택의 표현적 특징에 관심을 갖고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려는 연구는 많지 않다.

해방과 전쟁의 혼란을 겪고 1960년 이후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는 우리나라 현대주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와 함께 도입된 서구의 건축기술과 재료는 근대적 생활양식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의 틀을 제시했지만 과도하고 무분별한 서구적 표현의 인용과 복제로 전통주거와의 단절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고 이러한 성향의 지속에 대해 우려의 소리도 높다. 더욱이 서양 주택의 표현 요소는 우리나라 현대주택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많은 변화를 야기시키므로 구체적으로 서양의 어떤 요소가 도입되고 영향을 주었는지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현대주택의 표현 요소의 변화를 파악하여 대표적 양식을 추출하고 그 표현적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대주택에 미친 영향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현대주택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디자인하는 건축가와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50년 이후 우리나라 현대주택의 표현 특성의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택 양식은 무엇이며 그 표현 특징은 어떠한가?

II. 우리나라 주택 표현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 현대 건축은 국제화 양상에 따라 모더니즘, 레이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등이 나타나며 이외에도 서구 고전양식, 한국 전통 양식과 이들이 절충된 혼성적 표현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창모,1996). 일반적으로는 모더니즘 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탈 근대적 경향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있다(박홍, 1991). 서양의 경우 모더니즘이 1920년대에서 1960년대 까지 지속되었으며 레이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 이후부터 나타났다(Jencks,1982). 이러한 현대적 경향은 우리나라 주택에 196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는 1980년대 대립과 다원주의 시기로 알려져 있으며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1990년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확산이 두드러지며(오광수,1995) 해체주의도 도입되어 다양성과 개성화의 경향(정경화, 1997)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현대주택에 나타나는 서양의 표현 특성은 모더니즘에 있어 간결성, 표현의 억제, 상징성 지양, 실용성과 기능성 추구로 나타나며 탈 근대적인 경향으로는 다양한 요소의 혼성과 복합적인 구성으로 절충적이고 상징적 표현을 추구하며 해체주의 경향은 요소의 중첩, 비틀림 등이 표현되고 있다(윤지영,1998). 그러나 전통성이나 한국성이 주택에 표현되는 경우 자연스러움, 간결한 선, 창식의 절제, 중성색 사용, 인간적 규모와 같은 특징(주남철, 1983)에도 불구하고 현대 주택에는 전통문양만을 이용한 표피적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대주택은 서구의 대표적 표현이 모두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못하여 일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시대별로 나타나는 주택의 표현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조형성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표적 양식의 규명과 양식화된 표현 특징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지금까지 시대 구분을 위해 주택을 분류한 연구(임창복,1989; 김경수, 1989; 고인룡,1995)에서는 일반적으로 10년 단위로 나누어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보편적인 방법으로 해방 이후 195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 연구의 주목적은 주택의 표현 특성과 대표적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진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정확한 특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문헌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조사에 사용된 주택 사진 자료는 전문지, 단행본, 논문을 중심으로 총 285개를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분석 대상은 단독주택으로 주상복합주택, 다가구 주택이나 주말주택은 제외하였고 주택의 표현 요소로 평면 외곽의 형태, 지붕, 창호, 전면의 마감재료, 색채와 장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평면에 있어서는 주택 외관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관련시켰으나 내부 구성과 조직 측면은 본 연구의 목적이 주택의 시각적 표현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에 따라 제외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먼저 서양의 주택양식과 표현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현대 주택의 표현 특성을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대적으로 분석하며 표현 요소의 지속과 단절을 살펴 대표적 양식을 추출하고자 한다. 추출된 양식은 그 특징이 어떠한지 밝히고자 한다.

IV. 주택 표현 특성의 변화

1. 서양 주택의 표현 특성과 변화

현대 건축이 발생한 19세기 이전까지의 주택양식은 과도기로서 신고전주의, 절충주의, 낭만주의 경향으로 전개되었다. 18세기 초에는 프랑스와 영국의 조지안(Georgian) 양식이 대표적이었으며 이 양식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 양식을 바탕으로 하며 대칭성, 형식성과 연속성이 특징이었다. 표현요소로는 정면 박공지붕, 새시 창, 덧문, 기둥, 코니스, 브라켓이 있으며 돌, 대리석, 회칠로 마감하였다. 빅토리아 (Victorian) 시대는 부와 성공의 과시를 주택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었고 고대로의 연결을 소망하는 낭만적 환상이 팽배함에 따라 고딕 양식의 부흥이 계기가 되어 박공 장식, 새시 창문, 붉은 벽돌, 회벽칠, 테라코타 등의 요소에 과거 양식이 절충적으로 표현되었다. 영국에서는 자유로운 구성에 의한 비대칭적인 주택이 나타났으며 붉은 기와 지붕과 넓은 베란다가 등장하였다. 이시기 새롭고 풍부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미국에서는 뾰족지붕, 박공, 고딕형 아치, 경사진 박공 지붕, 로마네스크 지붕, 거친 돌마감 등이 표현되었으며(Guillet,1992) 이러한 요소들의 표현은 오늘날 서양의 고전 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일차대전 종결과 함께 근대 건축운동이 시작되고 아방가르드 운동과 드 스틸(De Stijl)운동이 일어나 디자인 요소는 극도의 절제와 기하학적 요소의 표현을 주장하며 주택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형태의 입체주의적인 추상적 사회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1920년대 등장한 모더니즘 운동에 의해 주택의 표현 특징은 철근 콘크리트 사용과 장식이 배제된 깨끗한 벽면과 평지붕, 수평창, 자유로운 평면과 입면구성을 취하게 되었으며 있으며 위생적 환경과 기계 기능을 건축에 연계함으로써 공업화의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재료인 철, 유리, 플라스틱, 금속 등을 노출하여 사용하고 사각의 입체로 규칙적 질서를 표현하고 면 분할에 따라 전체 형태가 구성된 주택은 당대에 생활공간으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으나 전후 국제주의 양식으로 발전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이념과 원리를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레이트 모더니즘(Late-Modernism)은 1960년부터 규격화, 표준화, 공업화된 극단적으로 분절된 유리나, 금속판, 스테인레스 등의 신건축부재를 사용하여 기술적 이미지를 과장했다. 또 주변환경과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건물을 독립적, 자립적 대상으로 고려함에 따라 추상적, 조각적, 대칭적 경향과 수직, 수평의 대비한 긴장감을 보이며 장식이 배제된 기하학적 형태의 외관을 가진다.

1960년대 이후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은 현대건축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현대건축에서 배제되었던 지역성, 전통성, 상징적 의미, 장식 등을 다시 도입하게 되는데 주택에 있어서도 곡선형이 도입되었고 과거와 현대의 형태요소를 병치하고 고전적

형태를 기하학적 모티브로 전환시켜 사용하였다. 또한 재료도 고전적 양식에 철근 콘크리트나 시멘트, 블록, 타일, 금속, 모르타르, 유리, 스틸, 알루미늄 등의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재료, 색상의 형태를 대비로 대립성을 보여주었으며 수사적 표현과 과장된 스케일의 장식을 사용하였다(Jencks,1982).

1988년경 재료의 노출과 기하학적 형태가 강조된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과 해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해체주의(Deconstructivism) 양식은 왜곡된 원, 곡선과 기하학적 표현에 의해 바닥, 벽, 천장, 개구부, 계단이 불안정하며 외부 윤곽이 불분명한 탈구성적인 주택을 만들어냈으며 스틸파이프, 유리, 스텐레스 등의 재료를 외부로 노출시킴으로써 탈의미적 형태를 띠고 시각적인 긴장감을 자아내었다.

오늘날 서양의 현대주택에는 이러한 경향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콜로니얼, 튜더 양식으로 불리우는 고전적 양식과 현대 건축 사조를 표현하는 컨템포러리양식 그리고 지중해양식, 농장양식과 같이 지역 특유의 경향이나 절충된 형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양식은 오늘날 대표적인 주택양식이라고 하겠다(Arias,1993).

서양 주택의 구체적인 표현 특성을 요약해보면 < 표 1 >과 같다.

< 표 1 > 서양주택의 표현특성

사조	전반적 표현 특성	형 태	재료와 마감
신고전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스 로마의 고전주의, 고딕양식 등 역사적 양식의 절충적 표현 · 대칭성, 형식성, 연속성 · 낭만주의 영향의 장식과 자유 곡선, 타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타블레췌(entablature) -기둥, 소벽, 코니스구성 · 브라켓, 새시창문, 덧문, 아치, 뽀족지붕, 박공지붕 · 고전 모티브의 스타코 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석, 지역석재, 목재 벽돌, 테라코타,플라스터 · 스테인드 그래스 · 거친 돌마감 · 채색 기법
모더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 표현 · 기능성, 경제성 중시 · 간결함, 장식의 배제 · 개방성과 연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료한 형태 · 기하학적 형태와 구성 · 연속성과 통일성 · 수직, 수평의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생산을 위한 공업화 · 철, 콘크리트, 유리, 플라스틱, 금속, 거울 · 재료의 노출
레이트모더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주의 양식의 응용 · 규격화, 표준화, 공업화의 기술적 이미지 강조 · 기념비성 · 장식의절제 · 오브제성 · 솔직한 구조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 조각적 형태 · 대칭적 경향 · 선적 구성의 강조와 대비 · 장식의 최소화와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소재 사용 · 스테인레스,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 표면의 광택, 투명감 표현
포스트모더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성, 상징성, · 기념비성, 장식성, · 대립성, 맥락성, 지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하학 탈피, 곡선형 도입 · 고전적 모티브 사용 · 과장된 스케일 · 수사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근 콘크리, 시멘트블록, 타일,금속, 모르타르,네온, 유리, 스틸, 알루미늄
해체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구성, 탈중심 · 불분명한 외부형태 · 치완, 전이, 이탈 · 시각적긴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선의 방향성 · 탈의미적 형태 · 부정형의 구성 · 불규칙한 선 구성 · 트러스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료의 혼용 · 이색 재료 구성 · 스틸파이프,스텐레스 스틸판, 금속판, 유리, 거울

2. 우리나라 주택의 표현특성과 변화

1) 1950년대

50년대 등장한 대표적인 주택은 민간 주택과 ICA주택이 있다. ICA주택은 외형상 미국식을 본 따 서구적 스타일로 벽돌과 목재의 혼합구조로 된 우진각 지붕의 단층주택이며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 적절한 주택 형태였다. 기초와 기와제조, 외벽 마감공사에는 시멘트를 사용하였으나 재료의 부족으로 내부 마무리는 소석회와 해초, 백모여물을 섞어 사용하였다.

서민주택의 경우 주택 전면에 흙, 석회, 시멘트를 혼합한 흙벽돌을 사용하였다. 지붕구조는 기와지붕에서 합석사용이 유행하였지만 유지비와 단열의 문제로 기와 지붕으로 복원되었다(박춘식,1976). ICA주택이 호평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모방한 2층 주택이나 일본식 잔재가 남아있는 목조주택을 짓기도 하였다.

이 시기 한옥은 기능성과 합리성을 지향하기 보다 상류 주택을 본 따 장식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평면은 ㄱ자, 一자, 田자의 형태이었고 딱지소로를 사용하여 소로받침을 반쪽으로 잘라 보이는 면쪽에만 붙이는 방법, 굴도리를 반쪽으로 잘라서 사용하는 표현이 이루어졌고 처마길이를 짧게하고 흙통을 달았다(주정준,1991). 문과 창문은 대문을 제외하고 미서기로 바꾸었으며(송인호,1990) 도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2) 1960년대

6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불어닥친 주택붐으로 주택의 규모는 점차 대형화되기 시작했다. 난방 및 위생의 설비 분야가 발달되고 자재도 고급화되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서구의 건축 사상이 도입되어 다양한 스타일¹⁾이 나타나게 되었으며(강봉진,971) 대표적으로는 슬라브 주택이 유행하게 되었다. 슬라브 주택은 테두리보를 설치하여 1층과 2층을 구분하고 옥상부분을 이용한 슬라브 주택과 2층에 발코니를 설치한 슬라브 주택의 두 유형이 대표적이었다. 발코니를 설치한 슬라브 주택은 상류층에 주로 나타났다. 주택의 외부형태는 선형의 장방형이나 정방형의 기하학적 형으로 외관은 장식이 배제되어 단순하게 마감되어 모더니즘의 영향을 나타내주고 있다.

개량한옥은 이 시기 대량으로 건설되었는데 평면유형이 일부 세를 줄 수 있도록 한 형태가 나타나 수요자의 인기를 얻게 됨에 따라 ㄱ자형이 일반 단독주택의 기본 평면이 되었다. 이유형은 뒤에 ㄷ, ㄹ자형으로 변화되어 건물의 외관 형태를 이루었다. 특히 담장의 모양처리는 개량한옥의 장식성을 부가시켰으며 창은 2중창을 사용하였고 출입문은 합판문이었다(장상근,1988). 주택의 구조는 주로 단층이었으며 지붕틀은 트러스 구조로 구성되어 시멘트 기와를 사용하였다.

지붕의 양식은 모임지붕(ㄱ자형), 우진각 지붕으로 다양해지는 양상(김경수,1995)을 띠었고 주택 재료는 타일, 붉은 벽돌조, 시멘트 사용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마감재인 목재 사용은 수요부족과 가격상승에 의한 수요 감소로 인하여 한옥의 전승을 끊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시멘트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기와도 전통식 기와보다는 외식기와를 사용하였고 외형 및 담장처리도 모두 시멘트 일변도였고 이밖에 타일, 붉은 벽돌, 시멘트가 폭넓

1) 서양의 장식 스타일은 리브스타일(rib style), 와이드 윈도우(wide window style), 그릴리지 스타일(grillage style), 휘모티브 스타일(formative style), 발코니 스타일(balcony style), 셸 스타일(shell style), 미스춰 스타일(mixture style) 등으로 나타났다(강봉진,1971).

게 사용되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3) 1970년대

70년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아파트 붐의 이상기류로 영리에 급급한 집장사와 수요자에 의해 외관 치장을 중시하는 경향(임창복,1988)이 나타남에 따라 주로 건축가의 작가주택 양식을 모방하였다. 이는 상층 지향적인 성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택의 전체적인 외관도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허식적이고 과시적인 모습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60년대 슬라브 주택은 방수에 실패하여 다시 기와지붕을 입힌 미니 2층 집의 생산에 들어갔다. 이때의 기와지붕은 과거와는 달리 지붕한쪽면을 다른 한쪽면에 비해 큰 ㄱ자형식의 박공지붕으로 70년대 대유행을 하게 된다. 이는 천장의 기준 높이에 관계없이 더 높은 천정고를 가짐으로서 집 전체를 높게 보이려는 욕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뾰족지붕형식의 불란서식 주택이 연이어 생산되고 용마루를 중앙에서 약간 비켜세운형인 화란식 비탈집이 계속해서 건축되었다. 특히 불란서식, 화란식 주택은 50, 60년대의 단층에서 2층으로 보편화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화란식 비탈집이나 이러한 아류인 불란서식 뾰족지붕, 들림자 모양의 주택, 이태리식 박공지붕은 서양의 표현주의, 오브제적인 특징, 신고전주의 양식 채용의 레이트 모더니즘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은 안정성과 실용성이 없이 과시적 결과로 나타난 것이므로 일시적 유행에 그쳤다. 목조주택 건축이 금지되면서 조적식 구조의 건축이 일반화되었고 본격적인 양식주택으로 2층의 경우 임대 공간을 위해 외부계단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장상근,1998). 주택 외관은 또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택의 마감재는 붉은 벽돌이나 시멘트 벽돌이 일반적이었으나 화강석 등, 돌붙임이 전면 사용되었고 창은 목재창이나 백색 알루미늄이 사용되었다. 대문은 초기에 슬라브 형태의 철문이었으나 후반에는 한옥 형태의 쇠창살을 설치하는 양상이었다. 지붕에는 기와에 원색칠이 유행하여 붉은색, 청색, 녹색이 사용되었다(박춘식,1992). 처마 부분에 콘크리트의 서까래로 한식 주택 형식을 표현한 파고라가 나타났고 이러한 마감과 표현 특징은 대체로 과시적 성격을 크게 부각하는 것으로 크고 높은 육중한 대문의 설치와 함께 양식화 되었다.

4) 1980년대

80년대는 실내의 공간적 분화가 활발해 지고 구성의 세분화로 주택 규모가 커지게 되었으며 주택 외관은 장방형과 권총형이 일반적인 형태로 지속되다가 ㄱ자형, ㄷ자형이 증가하는 양상(손세관,1998)이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 주택은 완전 층별분리의 복층 형태로 독립된 가구의 입주를 위해 현관을 따로 내는 경우와 외부계단의 사용(최외선,1998)으로 외관에 변화가 나타났고 실내 구성상 거실에 벽난로가 있는 경우 계단실이 외부 입면상에 두드러진 특징을 주었다. 그러므로 외관형태의 복합화 혹은 비정형화가 특징으로 70년대의 단순화, 대칭화에 대응해 비대칭화로 변화하며 구성의 자유화 경향이 나타났다.

주택의 내, 외부를 연계하는 방식은 독립된 테라스 등장과 함께 다양해졌으며 건축화 테라스 뿐 아니라 마당, 뒷마루, 차양이 주택 외관에 변화를 주는 표현 요소로 사용되었고 여기에는 전통적 장식 문양이 시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 까지 서구 지향적인 표현의 반발로 민족 문화의 전통 보호와 계승 활동이 일어난 건축계의 변화(박춘식,1992)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붕형태는 박공지붕, 모임지붕, 겹지붕, 눈섭지붕 등 다양하지만 70년대 주택의 원만한

지붕형태의 주택을 그대로 간직한 채 약간의 변화만 주었을 뿐이며 지붕물매를 더욱 완만해지고 박공지붕 형태에서 모임지붕형식으로 하였으며(임창복,1988; 주정준,1991) 콘크리트 슬래브를 두드러지게 길게 뽑아내어 난간 파라켓을 강조하였고 정면 박공 지붕을 그 위에 씌웠다. 여러 층의 지붕에 전면 또는 후면에 부분적으로 설치하여 장식하는 눈썹지붕은 단독주택 뿐 아니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에도 적용되었는데 층별 구분 뿐 아니라 외면상 및 미감 표현에 변화를 주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또 샷시의 개발로 창의 면적이 넓어져 슬래브 바로 밑까지 창 높이가 높아졌고 개구부의 아치와 외벽 밖으로 돌출창을 낸 것도 눈에 많이 띄는 현상이다. 외벽재료는 치장 벽돌, 변색 벽돌, 돌붙임의 사용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붉은색의 치장 벽돌이 획일화되는 경향(주정준,1991)이었다. 70년대 유행한 청색, 녹색, 붉은 색의 기와지붕도 빨간색 하나로 통일되어 전체적으로 빨간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60, 70년대에는 일식기와가 주로 사용되던 것에서 탈피하여 한식 기와로 마감하였고 담장 및 대문처리에 있어서도 한옥고유의 문양 및 목재를 사용하여 장식성과 한국성을 추구하였다.

5) 1990년대

공동주택이 일반화됨에 따라 90년대 주택은 경제성 극대화를 위해 서민주택은 단독주택 대신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최미라,1995) 작가주택이 명맥을 유지하여 다양하고 실험적인 주택이 건립되었다.

80년대 일반화되었던 장방형과 권총형의 외관 형태는 마당을 둘러싼 ㄱ자형, ㄷ자형이 일반화되었고 선적 흐름이 강조되었다. 주택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분절화의 경향이 강해져 채 나눔의 방식을 통해 2-3채의 덩어리 형태가 복도나 계단과 같은 매개체에 의해 엮어지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자유로운 평면 구성에 의한 외부 윤곽이 불분명해지고 해체적 성향이 증대되어 개성화와 다양화의 경향이(손세관,1998) 특징이라고 하겠다.

주택 전면에서도 일부 실험성이 강한 건축가에 의해 자유형이 새로이 시도되고 외관형태의 복합화, 비정형화의 경향이 나타났다. 외부 벽체의 돌출 경향이 증대하여 연결 벽체, 유도 벽체 등 다양한 형식의 벽체가 사용되고(전경화,1998) 유리창은 더욱 대형화 되었으나 불규칙적인 크고 작은 창호로 변화를 주었다. 이전의 단순 연장형 테라스는 감소하고 내부와 외부공간을 이어주는 다양한 연계방식이 80년대에 이어 증대되었다. 주택 내, 외부의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마감재료와 색채 사용이 두드러졌다.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을 사용한 접지붕과 만사드 지붕 형태가 유행하였고 뒤덮듯한 지붕 상단에 아치형이나 뾰족한 형태의 지붕창이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시대별 우리나라 현대주택의 표현 특성을 요약해보면 < 표. 2 > 와 같다.

< 표 2 > 시대별 우리나라 현대주택의 표현 특성

구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평면	· 단순한형태의 집 · 중식-자평면 · ㄱ, ㄴ, ㄷ자형 · 마루중심 동선배열	· ㄱ자형, 권총형 · 서구식 평면 · 마루의 거실화	· 강한 대칭성, · 코너 절삭 · 외부와의 단순연계 · 수직적구조2층평면 · 좌식→입식 · 거실기능확대 · 화장실의내부화	· 대칭성과 비정형화 · 층의 분화 · 외부와 적극연계 · LDK평면 정착	· ㄱ, ㄷ자형 평면중대 · 외부연계수단복잡화 (→외부운락분명) · 채나눔 방식 (→분절화)
전면	· 사면을 회벽칠이 · 나시멘트 모르타 · 르로마감 · 단층구조	· 베란다가 있는 상 · 자형의 전면 · 테두리보 설치로 · 수평성장조 · 화강석, 인조석, 타일 · 로 전면 치장	· 강한 대칭성 · 화강석으로 전면 치 · 장한 장방형태 · 복층구조 · 파고라, 테라스 설치	· 대칭성의 비정형화 · 적벽돌 노출쌓기 · 개구부 아치, 난간 파라 · 뿔의 장식적 외관	· 개성적 외관과 다양성 · 돌출벽체 중대 · 수직, 수평적 매스의 · 분절 · 지붕형태간략, · 기와사용 감소
지붕	· 우진각 지붕 · 슬레이트 지붕	· 평지붕(슬라브) · 합각지붕(ㄱ, ㄷ, ㄹ)	· 박공지붕 · 불란서식 뾰족 지붕 · 돌입(入)자형 박공 · 지붕	· 우진각, 박공, 평지붕, · 눈썹지붕, 복합지붕 · 등 다양 · 완만해진 지붕물매 · 슬라브 위에 기와 설치	· 복합지붕 · 성글 지붕 · 만사드 지붕
처마	· 서까래 노출 · 처마고 2.5-2.8 M	· 슬라브 처마 · 처마고 3-3.5M	· 다양한 처마높이	· 처마가 낮아지고 난간 · 으로 표현 · 처마고 5.5-6M	· 처마가 낮아지거나 간 · 략
창호	· 창틀 주위가 노출 · 되는 단순한 형태 · 목재 창호	· 창문수의 증가	· 창호의 대형화 · 알미늄 샷시창	· 돌출창 · 창 면적이 커지고 높 · 이가 낮아짐 · 칼라유리 샷시	· 기능성이 향상된 대형 · 유리창 · 다양한 크기 창호
담장 및 대문	· 목재, 칠조망의 단 · 순한 형태	· 2M 높이의 시멘트 · 담장 · 철대문	· 2-2.5M의 폐쇄적 · 담장 · 식창살이 있는 크고 · 높은 철대문	· 낮은 담장이나 철책의 · 개방적 형태 · 한국고유 문양과 나무 · 돌 사용한 대문	· 더욱 낮아짐 · 개방적 형태 추구
재료	· 전면 흙벽돌(흙+시식 · 화+시멘트), 시멘트 · 내부: 소석회+해 · 초, 혹은 백모여물 · 지붕: 기와→합석 · →기와	· 전면: 시멘트, 타일, · 붉은벽돌 · 지붕: 일식기와	· 전면: 콘크리트 화강 · 석 돌붙임 · 지붕: 붉은색, 청색, 녹 · 색의 색채기와 사용	· 전면: 붉은벽돌 로롱 · 일, 칼라샷시유리 사 · 용 · 지붕: 붉은색의 한식 · 기와	· 전면: 신소재, 가볍고 다 · 양한 재료 사용 · 지붕: 목재, 아스팔트성 · 글
장식	· 벽체 하부에 시멘 · 트 모르타르 뿌림 · 장식	· 창틀주변치장 · 철대문 주위에 시멘 · 트 모르타르 장식 · 돌출창호 모서리에 · 기둥장식 · rib, wide, window · balcony 스타일의 · 다양한 외관 장식	· 슬라브 처마 강조 · 목조기둥, 서까래 형 · 태 장식 · 파고라, 테라스설치 · 크기의 강조로 과시 · 적 형태	· 단순하고 한국 전통미 · 추구 · 전통한식 기와, 길게 · 뿔아낸 슬라브 · 난간 파라뿔 강조 · 외부 색채를 붉은 색 · 으로 통일	· 하이테크의 현대적조형 · 미 · 테라스 윗마루, 차양의 · 장식적 매개물 사용 · 기하학적이고 개성적인 · 장식 기법

종합하면 우리나라 현대주택은 대략 10년을 주기로 새로운 경향이 유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 주택의 표현 요소로는 지붕, 전면 구성, 창호, 처마 띠, 담장, 대문, 전면재료, 색채로 나타났고 대표적 표현 특성은 간결성, 전통성, 과시성이었다. 외관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평면구성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장방형, ㄱ자형을 바탕으로 권총형 등이 주류를 이루며 주택 외관의 형태를 결정해 주었다.

전통적 생활방식에 의한 채나눔 방식에서 내부화로 시작된 현대 주택은 생활양식이 좌식에서 입식으로 느리게 변화됨에 따라 외관이 하나의 매스 형태와 전면 비대칭이 특징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은 서양의 영향이 표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본질적으로 전통성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뿌리 깊은 전통성의 지속과 현대화를 위한 절충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주택의 전면은 돌출 벽체에 의한 입체적 구성보다는 평평한 면의 선적 구성이 일반적이었고 단순하고 간결하며 장식 배제의 경향과 통일성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그러나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등장한 새로운 표현 특징은 획일적인 경향이 있어 다양성은 부족하다고 하겠다. 붉은 지붕과 벽돌 사용의 선호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시기별로 지붕의 형태는 가장 빈번하게 변화되어 주택의 표현 특성을 구분짓는 가장 큰 요인은 지붕이라고 하겠다.

3. 대표적 주택양식과 표현특성

시대적 표현 특성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적 주택양식과 그 표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50년대부터 60년대 현대 전반기에는 개량한옥이 유행하였으며 이 주택은 전통 주택을 그대로 실내화하고 재료와 평면 구성이 개선되었으나 전통적 디테일, 장식과 문양을 간직한 표현 특징으로 전통성과 한국성을 상징한다. 이러한 주택은 점차 하나의 담장을 공유하는 개량한옥으로 발전하였고 목재로 만든 유리창을 사용하는 변화와 함께 현대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택을 개량한옥양식(< 그림 1 >참조)이라고 하겠으며 이 양식의 주택은 70년대 이후 서구 양식의 도입으로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여 전통 문양을 사용하는 정도로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우리나라 주택양식 중 하나라고 하겠다.



< 그림 1 > 개량한옥양식

전통적 구조와 디테일, 담의 장식과 문양이 한국적 양식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전면의 미단이 유리창과 재료가 현대적이라고 하겠으며 하나의 담으로 연결되는 특징은 연속성과 통일성의 개량한옥양식의 표현 특징을 나타내 준다.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슬라브 주택은 기하학적인 형태의 지붕이 없는 몸체, 수평성을 강조한 건물 형태, 기다랗게 유리창을 설치하거나 평평한 표면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는 서양의 모더니즘의 표현 특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한국적 모더니즘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지붕이 없이 장방형의 몸체로 구성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므로 평지붕양식(<그림 2>참조)이라고 하겠다. 평지붕양식의 주택은 60년대 단층 구조에서 점차 복층구조로 발전하였으며 처마 띠의 수평성이 더욱 강조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전면 재료는 붉은 벽돌이나 타일 등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 경제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표현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80년대는 평지붕의 꼭대기 일부에 지붕을 다시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양식의 주택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 그림 2 > 평지붕양식

평지붕 양식은 장방형의 기하학적 형태, 평평한 전면, 벽돌과 타일의 밋밋한 장식, 미닫이 유리창의 수평적 배치, 지붕이 없는 대신 수평적인 띠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모더니즘 이후의 국제주의 양식의 표현적 특징을 나타내준다.

70년대 이후 등장한 전면 박공, 뾰족지붕, 분절된 지붕 등을 가진 주택은 80년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지속된 유형으로 박공지붕 양식이라고 하겠다(<그림 3> 참조). 이러한 주택의 표현 특징은 17세기 이후 서양의 고전양식 주택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거대 규모의 지붕에 의한 강조로 선적 구성의 강조와 대비를 이루고 과시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된 점, 그리고 구조의 솔직성은 레이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80년대 들어서는 전통 문양이나 과장된 스케일의 구조를 채용하여 지역성, 상징성과 대립성을 의미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밖에 표현 요소로 아치의 곡선요소 도입, 파라펫, 발코니의 장식 처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탈 근대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박공 지붕의 주택은 전면이 대칭보다는 비대칭이 일반적 경향으로 서양의 정면 박공과는 차이를 나타내는 점이다. 전면 구성은 발코니와 처마 띠에 의한 강한 수평선과 사선이 강조되고 여기에 수직적으로 재료를 달리하는 비대칭의 면 구성은 조화와 비례미를 보여준다. 이 양식의 주택은 소규모 주택보다 대형 주택의 경우가 많아 부와 과시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양식이라고 하겠다.



< 그림 3 > 박공지붕양식

서양 고전 주택의 대표적 표현 특징인 페디먼트(pediment)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되었고 이러한 지붕의 대표적 형태는 70년대에 주택 전면에 대칭적으로 거대하게 사용됨으로서 과시적이고 허식적으로 강조되어 레이트 모더니즘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이나 모티브를 장식 요소나 아치와 같은 요소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장식성, 상징성을 추구하거나 지역 특유의 포스트 모던 개념을 나타내었다.

80년대 이후 실내 내부 구성의 다양성과 수직적 구조, 외부계단 발생, 현관수 증가와 같은 변화에 의해 주택의 외관은 높낮이가 다른 겹지붕의 주택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주택은 90년대 들어 자유롭고 실험적인 수직 수평적 매스의 분절, 채 나눔 방식에 의한 분절화, 매끈한 표면의 신소재 사용에 의해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개성적인 표현으로 해체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매스의 크기가 다른 여러 채나 전면이 입체로 구성되는 특징으로 외곽의 형태가 불분명한 특징이 있고 창, 문, 전면구성에 기하학적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표현 특징을 나타내는 주택을 복합지붕양식(< 그림 4 > 참조)이라고 하겠다.



< 그림 4 > 복합지붕양식

80년대 이후 높낮이가 다른 여러 형태의 지붕으로 구성되거나 대형 지붕이 강조된 주택의 표현이 나타났으며 대규모 주택에서 현관수 증가, 외부계단 발생, 실내의 수직적 구조와 같은 전면의 변화에 의해 복합지붕 양식의 성립. 90년대의 수직, 수평적 매스의 분절, 채 나눔 방식에 의한 분절화, 사각, 삼각, 원 등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한 전면 구성, 장식 배제, 매끈하고 하이테크 재료의 사용은 해체주의 영향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복합지붕양식은 실험주의적이며 개성적이고 다양한 표현 경향이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택양식은 개량한옥양식, 평지붕양식, 박공지붕양식과 복합지붕양식이라고 하겠으며 이들 양식에는 우리나라 전통양식 뿐 아니라 모더니즘, 레이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등 현대의 경향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조의 영향은 표현 특성과 형태에 있어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료에 있어서는 서양에서 신소재나 기계 생산에 의한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재료나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고 서양에서 유행하는 주택 양식을 도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춰 가미됨에 따라 독특하고 개성적인 표현 특징으로 양식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주택의 표현 특징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별 주택의 표현 경향에 있어서는 대략 10년 정도로 새로운 표현 경향이 등장하였다. 전체적인 표현 특성은 간결성, 전통성, 과시성으로 나타났고 지붕 형태는 가장 큰 변화 요소로 주택의 표현 특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전면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그 구성에 있어 서양과 달리 비대칭이 특징이었고 이것은 좌식의 한국적 평면 구성을 바탕으로 발전한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주택의 표현 특징은 외면적으로 서양의 표현 요소 도입과 유행에 의해 한국적 표현이 사라졌으나 전통적 개념에 서양의 표현 특징을 절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조건적 서양의 표현 추구로 간주되는 우리나라 주택양식에 대한 평가는 재고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대 주택의 대표적 양식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개량한옥양식, 평지붕양식, 박공지붕양식, 복합지붕양식으로 나타났다. 개량한옥양식은 전통성을 바탕으로 하며, 평지붕양식은 모더니즘을, 박공지붕양식은 레이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복합지붕양식은 해체주의 양식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평지붕양식은 간결성과 장식의 절제로 경제성이 특징이고 가장 오랜동안 지속된 양식이었다. 박공지붕양식은 조형성이 강하며 부를 상징하는 과시성, 장식성이 대표적인 양식특징을 나타내었다. 90년대의 복합지붕양식은 탈중심성, 수직적 긴장감과 기하학적 형태, 신재료 사용이 특징으로 주로 전문적인 주택 설계자에 의해 주도 되었다. 그러므로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주택양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표현적 특징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사진을 통한 조사로 이루어져 어느정도 제한점을 갖는다고 하겠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험연구를 통해 현대 주택의 표현 특성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건설부, 단독주택표준설계에 관한 연구, 건설부, 1979
- 고인룡(1995), 한국주거건축의 평면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수(1989), 한국현대건축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한건축학회(1997), 주거론.
- 류향률(1984), 한국 중산층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해방 이후 도시 중산층 단독주택 양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호정 외 1인(1995), “한국 현대주택에 나타나는 전통성 표현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권, 제1호.
- 박춘식(1992), 1950년대 이후 단독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인호(1990), 도시형 한옥의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박사학위논문
- 윤지영(1999), 1960년대 이후 한국주택의 스타일과 이미지 분석, 한국 실내 디자인 학회지, 21호.
- 임창복(1988), 한국 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4권 2호.
- 임창복(1988), 한국 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박사학위논문
- 장상근(1988), 주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주거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정준(1991), 한국현대 주택 평면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화(1997), 우리나라 작품주택의 공간구성적 특성 및 그 변화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훈, 박강철(1995), 거주자의 상화성에 따른 주거 유형별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1권, 3호, 통권 775. PP.37-47.

최외선 외(1998), "생활과학의 이해", 형설출판사.
 한국건축가협회(1999), 한국의 현대건축: 기문당
 통계청(1999), 우리나라 인구·주택의 변화 모습.

- Arias, Ernesto G.(1993), The meaning and use of housing, England Athenaeum Press
 Brunswik, E.(1956), Perception and The Representative design of sychological
 experimen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anter, C.(1969), "An intergroup comparison of connotative dimensions in architecture",
 Environment and Behavior, 8, pp.239-264.
 Fusch, R and Ford, L.(1986), "Architecture and the geography of the American City",
 The Geographical Review, 79, pp.324-340.
 Groat, L.(1982), "Meaning in Post-Modern architecture: An examination using the
 multiple sorting task",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 pp.3-22.
 Jencks, Charles(1982), Architecture Today's, Academy Edition.
 Lang, J.(1987),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The Role of the Behavioral Sciences in
 Environmental Design, New york, N.Y.: Van Nostrand Reinhold Co.
 Malnar, J. M. and Vodvarkar, F.(1992), The Interior Dimension, Van Nostrand Reinhold,
 1992, p.229-233.
 Schulz, Noberg, c.(1965), Intentions in Architure, Cambridge, MA: The M.I.T Press
 Toward a Psychologically Based Aesthetics of Architecture", Intrim Report No.34,
 Center for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p.9.